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3D DIGITAL P형 부츠 전세계 300컬러 한정 상품 판매 '랄프로렌', 포트나이트 디지털 부츠 IRL 버전 출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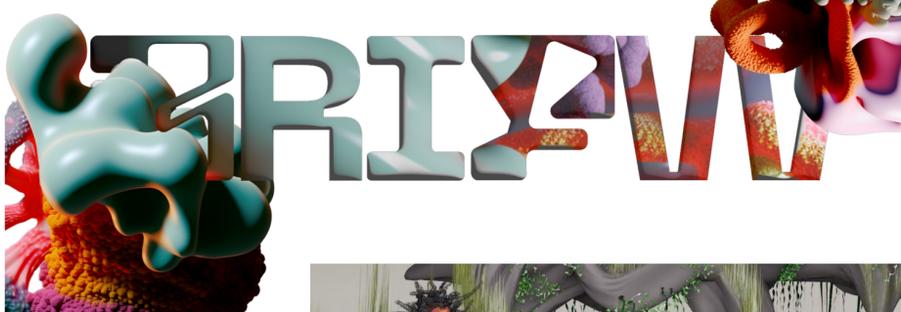
포트나이트에 등장했던 '랄프로렌'의 디지털 부츠가 전세계 300개 한정 상품으로 출시됐다. '랄프로렌'은 지난해 10월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와 함께 '피지탈(phygital)' 패션 컬렉션을 제작했다. 자동차 경주와 항공 개념을 융합한 '랄프로렌' 1992 스타디움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게임, IRL(In Real Life) 버전 모두 선보인 바 있다.

지난 8월 3일 출시한 디지털 P형 부츠는 포트나이트 내에 새로운 브랜드 세계 '위대함을 향한 레이스'를 출시하며 동시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이다. P형 부츠는 '랄프로렌'의 헤리티지와 포트나이트에서 등장하는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게임 스틸의 신발에 사용된 블랙, 레드, 화이트 컬러로 구성했고, 오리지널 컬렉션 출시 연도를 기리기 위해 부츠 측면에 '1992'를 포인트로 했다. 이 제품은 전세계 300컬러만 제작되어 오직 '랄프로렌' 자사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한편 포트나이트의 '위대함을 향한 레이스' 세계는 '랄프로렌'이 처음으로 포트나이트를 위해 독점적으로 디자인한 디지털 풍경 Polo Pony 모양의 섬에서 펼쳐진다. 랄프의 비행기 격납고, 로키 산맥, 그랜드 포스트에 걸친 세가지 독특한 지형을 가진다. 세 영역 모두 디자이너의 집, 차고, 이전 컬렉션, 런웨이스, 홈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이 완성됐다.

3D DIGITAL LAMEA, 디지털 의류로 패션산업을 혁신하는 방법⁽²⁾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수용에 개방적인 태도가 플러스 요인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LAMEA) 지역이 디지털 패션 시장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패션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LAMEA 지역의 젊고 기술에 정통한 세대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개방적이다. 이들은 디지털 경험과 가상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패션에 대한 완벽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또 LAMEA 지역의 패션 산업은 독창성, 혁신으로 유명하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보다 쉽게 디지털 의류를 사용해 새로운 차원의 창조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패션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의 중요성과도 일치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통 패션 생산이 자원 집약적이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물리고 있지만, 디지털 의류는 물리적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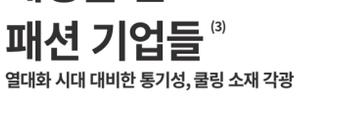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맞춤 제작의 프로세스에 디지털 의

류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LAMEA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장인 정신을 보존하고, 디지털 요소와 물리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의류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에서 나서고 있다.

FASHION 'Cooling' 소재에 베틱을 건 패션 기업들⁽³⁾

열대화 시대 대비한 통기성, 쿨링 소재 각광



'유니클로' 쿨링 아이템 에어리즘

최근 UN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 가고 지구 열대화 시대'를 언급했다. 전세계 온도가 상승하면서 '메이시스',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유니클로' 등은 통기성, 쿨링 기능 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직면한 의류 업체들은 폭염이 적어도 3개 대륙을 강타함에 따라 '쿨링' 의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소재는 면, 폴리에스터 나트로부터 기본 전환에 효과적인 경량 소재, 기능성 직물, 냉감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테크 소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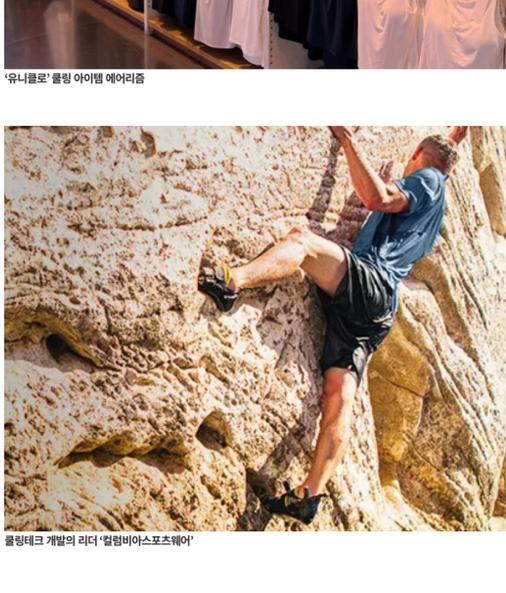
메이시스 백화점은 리오셀로 만든 150달러의 트랜치코트, 모달로 만든 24.5달러 티셔츠 등을 출시하고 '통기성', '쿨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성복 '리브레이션'은 텐셀과 함께 스커트, 하의, 드레스 등의 아이템을 제작했다.

'아디다스'는 섬유 제조업체 'brrr'의 냉각 미세알 소재를 활용한 골프 폴로 셔츠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다.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는 업그레이드된 울나-프리즈 제로 아이스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를 출시했고, '유니클로' 역시 큐프로 소재를 사용해 건조가 빠르고 시원한 에어리즘 라인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실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리오셀, 모달, 큐프로를 포함한 셀룰로오스 기반 섬유의 전세계 생산량이 2022년 720만톤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클링테크 개발의 리더 '덜럼버아스포츠웨어'



자라 가로수길 매장

FASHION 효율화 이유로 몸집 줄이는 '자라'⁽⁴⁾

롯데 중동, 명동 앰플라자점 등 4곳 정리

스페인 인디텍스그룹의 '자라', '마시모두띠'가 국내에서 효율화를 이유로 매장 축소하는 등 재정에 나섰다.

'자라'는 최근 롯데 중동점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 1년 사이 명동 앰플라자점, 롯데 잠실점, 가로수길점에 이어 롯데 중동점까지 총 4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롯데월드몰점과의 중복 영업으로 폐점을 한 롯데 잠실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장은 저조한 실적과 방문객 감소가 주된 이유다.

인디텍스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라, 마시모두띠, 폴앤베어 등 전 세계 1,200곳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역시 '자라' 매장 수는 2020년 41개였으나 22년 초 기준 35개로 축소됐다. 또 지난 연초에는 '마시모두띠' 가로수길점, '자라홈' 가로수길점을 철수했으며 '자라' 가로수길점 역시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자라' 가로수길점은 총 3층 규모로 플래그십스토어 역할을 했던 곳이다.

자라측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매장을 확장하거나 리뉴얼하고, 실적이 부진한 곳은 운영을 종료하는 식으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라 가로수길 매장



섬유 폐기물이 옷걸이로 변신?

TEXTILE 섬유 폐기물이 옷걸이로 변신?⁽⁵⁾

美스타트업 GRAFF, 9월 Hult Prize 결승 진출

세계적으로 섬유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섬유 폐기물로 옷걸이를 개발한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미국의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GRAFF(그라프)'는 최근 섬유 폐기물을 활용해 패션 옷걸이를 개발했다. '그라프'의 공동창립자인 리카타 락다알라와 프란체스코 피오릴리는 생산된 의류의 85%가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유용하게 바꾸기로 결정

하고, 최종적으로 옷걸이를 개발했다. '그라프'는 섬유 폐기물을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특허 소재로 변환, 지속 가능하고 패셔너블한 옷걸이로 만들었다. 향후에는 소재 및 가정용 가구, 액세서리 등에도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캘브리지 Hult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팀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그라프'는 Hult Prize 준결승자로 오는 9월 파리에서 열리는 Hult

Prize 결승에 참가한다. 우승을 할 경우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고 시제품 개발에 나선다. 창립자 락다알라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해 온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Hult Prize는 패션 산업을 혁신하고 지금 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어워즈로서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PIS 2023

Preview in Seoul 2023 of Do All Rights Reserved.

SUPPLIER 496+

PHOTO 1736+

VIDEO 186+

3D LOOKBOOK 129+

ONLINE SHOWROOM

→

SEARCH ITEMS

→

MY FAVORITES

→

TEXTILE 2023 PIS 디지털 쇼룸, 2주 만에 3,000여명 방문⁽⁶⁾

2,100여 디지털 콘텐츠와 패션 소재 트렌드 한눈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는 8월 23~25일 개최하는 '프리뷰인서울 2023' 개최에 앞서 '온라인 전시관(PIS Digital Show)'을 오픈했다.

지난 7월 14일 오픈한 PIS 온라인 전시관은 참가업체별 온라인 쇼룸, 제품보기&검색, 나의 관심제품&업체 등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바이어 3,044명

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 전시관은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원사, 원단, 부자재, 완제품 등 2,100여개의 사진, 동영상, 3D 룩북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정보와 오프라인 미팅 신청, 제품 문의, 샘플 요청이 가능하다.

'프리뷰인서울 2023'은 오는 8월 23일~25일 코엑스 A, B1, E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 컨셉은 '드라마틱 코어(Dramatic Core)'로 친환경 소재 중심의 Circular Core, 기후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및 기능성 소재로 구성된 Hi-per Core, 예술 감성이 뛰어난 Craft Core, 최근 마켓 트렌드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Rising Core 4개의 테마로 기획됐다.

1) Robb Report _ Ralph Lauren Will Soon Offer an IRL Version of the Digital Boot It Debuted in Fortnite, 2023년 8월 2일
 2) Fagen Wasanni Technologies _ How LAMEA is Revolutionizing the Fashion Industry with Digital Clothing, 2023년 7월 31일
 3) Fashionnetwork _ Clothings bet on 'cooling' fabrics as global temperatures rise, 2023년 8월 1일
 4) 뉴스원 _ 자라, 롯데 중동·명동 앰플라자점 등 4곳 정리...매장 효율화 자원, 2023년 8월 1일
 5) NBC10BOSTON _ This local startup developed clothes hangers out of textile waste, 2023년 8월 4일, 사전 Hult 블로그
 6) 한국섬유신문 _ 2023 PIS 디지털쇼룸, 7월 오픈...2주 만에 3000여명 바이어 방문, 2023년 7월 31일